

축구

8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K리그 '8라운드' | 전북, 제주 잡고 6연승 선두질주



전북 현대 로페즈가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8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전북은 로페즈의 골로 6연승을 내달리며 리그 선두를 지켰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아스널 아르센 웬거 감독이 22년의 장기집권을 마감했다. 웬거 감독은 2017~2018시즌을 마친 뒤 팀의 지휘봉을 놓기로 최근 결정했다. AP뉴시스

해 저무는 웬거의 아스널

22년간 우승 10번·무패 우승 신화도 한 팀에 모든 것 바친 '특별했던 여정' 시즌 후 결별...에버턴 새 정착지 부상

잉글랜드 축구의 위대한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아르센 웬거(69·프랑스)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아스널과 2017~2018시즌을 끝으로 이별을 택했다. 1996년 9월 부임한 웬거 감독은 "지금 이 클럽과 헤어지는 데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아스널을 향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며 작별 메시지를 남겼다.

웬거는 분분해도 오랜 시간 '아스널=웬거' 등식이 성립해왔다. 22년 동안 한 팀에 머물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웬거 감독은 티에리 앙리, 파르리스 비에이라 등 스타들을 탄생시켰고, 인파스로 단단한 아스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웬거 감독은 아스널이 창단 110년 만에 처음 데려온 외국인 사령탑이었다. 무명의 그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만 해도 영국 언론들은 의구심을 보였다. 탄수화물과 유류 섭취를 최대한 줄인 식단 조절과 독특한 훈련방식은 경기 당일까지도 콧잔의 스테이크를 먹자와 먹는 데 익숙한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한 선수단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모두가 감독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게 됐다.

실제로 재임 22년 동안 리그 3회, FA컵 7회 정상에 올랐는데, 2003~2004시즌 프리미어리그역 사상 최초로 무패(26승12무·승점90)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구단과의 공합도 척척 맞았다. 경제학 학위 소지자답게 클럽 재정에도 관심이 많았다.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적절한 타이밍의 선수 이적을 통한 수입을 확충했다. 오랜 역사의 하이버리를 버리고, 7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에미리츠 스타디움을 신축할 수 있었던 것도 당장 과 오늘이 아닌, 클럽의 내일과 미래를 그려가는 것에 동조한 웬거 감독의 지지가 컸다.

로페즈 광!...최강희 감독, 역대최다 210승 타이

(전북)

전북, 제주 원정서 1-0 값진 승점 3점 박형진 극장골...3연승 수원 선두 추격 인천 문선민, 팀 패배로 빛바랜 4호골



전북 현대가 제주 원정에서 귀한 승리로 6연승을 내달렸다. 전북은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26분 외국인 공격수 로페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6연승을 달린 전북은

을 시즌 K리그1 8경기에서 7승1패(승점21)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은 이날 승리로 통산 210승째를 챙겨, 김정남 전 감독과 역대 최다승 타이틀을 이뤘다. 전북은 경기 이전까지 7경기에서 16골을 터뜨렸는데, 이중 전반 16분~30분 사이 3골을 넣었다. 경기 초반 15분간의 탐색전 이후 득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전북은 전반 26분 로페즈가 골을 터뜨렸다. 아크 왼쪽에서 손준호가 프리킥을 직접 슛으로 연결한 볼을 제주 골키퍼 이상근이 쳐냈다. 문선민으로 달려든 전북 이재성이 볼을 잡아 로페즈에게 연결했다. 첫 슈팅은 이상근의 몸을 맞고 나왔지만, 재차 볼을 잡

은 로페즈는 침착하게 마무리해 골을 만들어냈다. 첫 골 이후 변수가 발생했다. 전북은 골을 터뜨린 로페즈가 전반 35분 몸싸움 도중 제주 김원일을 가려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 당했다. 전북은 수적 열세에 몰렸다. 하지만 시간이 길지 않았다. 제주의 이찬동이 전반 37분 돌파를 시도하던 김신욱을 잡아당겨 경고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10대 10 싸움을 벌인 전북과 제주는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지만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은 안도의 한숨을, 제주는 아쉬움의 한숨을 지었다. 제주는 최근 3경기 무패(2승1무) 끝에 빼어난 1패를 당했다. 제주는 3승2무3패(승점11)로 6위가 됐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는 수원 삼성이 2-2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추가시간 박형진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인천 유나이티드에 3-2로 이겼다. 원정에서 승리를 챙긴 수원은 최근 3연승과 함께 7경기 연속 무패(5승2무)행진도 이어갔다. 2위 수원은 5승2무1패(승점17)로 1위 전북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경기 내내 활발한 공격을 펼친 인천(1승3무4패·승점6)은 또 다시 수비벽이 허물어지면서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인천 공격수 문선민은 양 팀이 1-1로 맞선 후반 10분 시즌 4호 골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문선민은 이동국(전북)과 함께 올해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국내선수가 됐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체중은 줄였는데 부담은 못 줄인 말경

(경남)

최근 부진에 특훈 자청 일주일 땀뻘 땀 흘린 말경...승점 1점 작은 소득

경남FC의 '과물 골키퍼' 말경(브라질)은 최근 잡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실력에 한계를 느꼈 것이다. 지금 몸담고 있는 K리그1과 지난 시즌 머문 K리그2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새삼 인지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특히 시



말경

즌 내내 진행할 '체중과의 싸움'이 관건이었다. 개막을 앞뒀을 때보다 6kg이상 불어났다. 경기가 의지대로 풀리지 않자 찾았은 스트레스트를 폭식으로 풀었다. 말경의 침묵과 아쉬운 팀 흐름이 궤를 함께 했다. 개막 이후 4연승을

달린 경남은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대구FC와 1-1로 비겼고, 전북 현대~포항 스틸러스에 완패했다. 3-1로 이긴 강원FC 원정(1일)에서 시즌 5·6호 골을 넣은 뒤 득점이 멈췄다. 2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K리그1 8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말경은 특별 훈련을 자청했다. 일주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단을 조절했고, 섭취량도 줄이면서 체중계 바늘도 움직였다. 한편 가벼워진 몸으로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가볍지 못했다. 심적인 압박이 상당했다. 세 차례 시도한 슛은 정확도가 부족했다. 또 침묵, 잔뜩 일그러진 하늘과 강한 바람과도 싸운 말경은 최전방에서 분전했으나 골

맛을 보지 못하고, 0-0으로 90분을 마쳤다. 말경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올려 지금의 괴물로 만든 경남 김종부 감독도 매 경기 전방에 고립돼 외롭게 싸우는 에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4연패 후 3연승을 내달리며 강호의 위상을 찾은 울산과 승점 1을 나눠 가진 것은 긍정적인 소득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상승세를 타다보니 주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부담이 커졌다"고 걱정하던 김 감독은 "천천히 기다려주고, 기회를 꾸준히 부여하면 반전할 수 있다"고 풀죽은 말경을 격려했다. 창원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잇단 퇴장에 이번엔 수비 실책...답답한 전남

7일 이후 3경기 연속퇴장 전력 구멍 강원전선 수비 실수로 1-4 완패 발미

개막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2018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던 전남 드래곤즈의 침묵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7경기(2무5패) 동안 승리를 맞보지 못한 채 최하위 포지션을 쉽게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4월 레이스 내내 레드카드와의 악연이 계속됐다. 무려 세 경기 연속으로 퇴장이 나오면서 100% 전력을 풀리지 못했다. 시작은



유상철 감독

7일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이었다. 한찬희가 깊은 태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레드카드가 나왔다. 전남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막판 최재현의 동점골로 힘겹게 2-2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후에도 레드카드와의 싸움은 계속됐다. 11일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서 완델손이 김수범과 충돌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았고, 14일 전북

현대 원정에선 이슬찬이 팔꿈치를 쓰다가 퇴장 당했다. 결국 전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0-3으로 졌다. 침체 분위기에 빠진 전남으로선 21일 강원FC전이 반등의 기회였다. 무엇보다 홈구장인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의 강원 상대전적이 믿을 구석이 없었다. 강원은 2009년 창단 이후 전남 원정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통산 전적 역시 2승2무9패로 열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도 대폭 약해진 전남 수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전남은 강원 외국인 공격수 제리치에게 헤트트릭을 내주면서 1-4로 대패했다. 경기 초반부터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연출됐다. 전반 8분 이근호에게 오른쪽 측면을 허용한 뒤 문전에서 제리치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이

근호와 제리치에게 모두 수비수 두 명이 따라붙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6분 뒤에는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다. 수비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볼을 제리치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다. 안일한 플레이로 승기를 뺏긴 전남은 결국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전남 유상철 감독은 22일 통화에서 "초반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며 선수들이 계속해 중앙감을 받는 모습이다. 여기에 부상자들 역시 많아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선수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만큼 일단 실점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